

『太平廣記』의 한국傳來와 影響

장 연 호*

차례

- | | |
|---------------------------|-------------------------|
| I. 서론 | IV. 『太平廣記』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
| II. 『太平廣記』의 發刊 및 流傳과 한국傳來 | V. 결론 |
| III. 『太平廣記』의 한국적 수용 | |

I. 서론

『太平廣記』는 宋代에 發刊되었는데 6,900여종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방대한 설화집이다. 『太平廣記』는 한국에 널리 알려졌고 그 만큼 관련 논문도 상당수에 이른다.¹⁾ 대표적인 연구물은 金鉉龍의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 『太平廣記』의 影響을 中心으로-』를 들 수 있는데 저자는 연구저서에서 먼저 『太平

* 신라대학교 교수 ; 연변대 교수

- 1) 『太平廣記』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太平廣記』의 影響을 中心으로-』, 一志社, 1976 ; 金鉉龍, 『太平廣記에 나타난 神仙攷-韓國古代小說과의 關聯性 考察』,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제52호, 1971.5 ; 徐張源, 『『太平廣記』東傳之始末及其影響』, 『中國語文學』第7輯, 1984.5 ; 兪炳甲, 『中國學術要籍『太平廣記』評介』, 『中國學研究』第3輯, (韓國外大 中國學研究所), 1986 ; 尹河炳, 『『太平廣記』로부터 諺解本 『太平廣記』成立에 관하여』, 『古典小說 太平廣記 作品選』, 國學資料院, 1996.11 ; 安炳國, 『『太平廣記』의 移入과 影響』, 『은지논총』 제6집, 2000 등이 있다.

廣記』의 형성과 전래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설화와의 對比, 한국소설과의 對比考察을 시도하였다. 그는 형성과정을 이야기하면서 『太平廣記』明板本 서문의 언급을 빌어 『太平廣記』는 發刊된지 얼마 되지 않아 구득하기조차 어렵게 되었고 悲運으로 성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見解는 한국학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大部分 학자들의 공통된 見解이기도 한데 필자는 本文에서 이와 관련해 文獻資料를 바탕으로 再考察을 해보려고 한다.

『太平廣記』의 傳來에 관해서는 明確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딱히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金鉉龍은 張德順의 考察대로 1215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상당한 독자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고 『太平御覽』이 1101년에 輸入된 것을 감안해 『太平廣記』는 1100~1200년간에 전래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으며²⁾ 다른 학자들도 거의 동일한 見解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傳來時期와 관련해 北宋과 高麗의 使臣往來를 살펴보고 朴寅亮의 경우를 들어 새로운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문학의 수용과 영향은 상호 소통의 관계로써 수용이 없이는 영향이 있을 수 없다. 『太平廣記』의 영향에 관해서는 한국의 문학발달에 깊은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金鉉龍, 安炳國, 김장환 등은 관련 작품들을 폭넓게 比較考察하면서 영향관계를 밝히기도 했다.³⁾ 필자는 본문에서 기존의 研究成果를 종합해보고 『太平廣記』가 한국 訟事說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考察해보고자 한다.

II. 『太平廣記』의 發刊 및 流傳과 한국 傳來

『太平廣記』는 宋代의 대표적인 作品集의 하나에 속하는데 사실상, 중국 古代

2) 金鉉龍, 위의 책 참조.

3) 金鉉龍, 위의 책 참조 ; 安炳國, 위의 논문 참조 ; 李昉 등 編著, 『太平廣記』(김장환·이미숙 外 옮김)서문 (옮긴이의 말), 학고방, 2002.3 참조

부터 宋初까지의 文言설화를 집대성한 방대한 설화집이다. 기원 977年(宋太宗, 太平興國 2年) 3월 戊寅에 翰林學士 李昉은 태종의 勅命을 받고 그가 대표가 되어 當代의 翰林學士 13人⁴⁾ 과 함께 纂輯에 着手하였다. 1年半이나 걸려 翌年 8月 13日에 完成하여 表進하였고 太宗이 賜名하여 『太平廣記』라 하고, 同年 25日 勅命을 받들어 史館으로 넘겨졌다. 이렇게 하여 太平興國 6年(981) 正月 敎旨를 받들어 雕印板, 刊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太平廣記』의 最初板本이다. 宋初板本은 아쉽게도 流失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板本은 明板本,⁵⁾ 淸板本⁶⁾ 등이다. 宋代人 王應麟의 『玉海』卷五四에 보면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先是帝閱類書，門目紛雜，遂詔修此書。興國二年三月，詔昉等取野史小說，集爲五百卷。五十五部，天部至百卉。三年八月書成，号曰『太平廣記』。二年三月戊寅所集，八年十二月庚子成書。六年詔令鏤板。『廣記』鏤板頒天下，言者以爲非學者所急，收墨板藏太淸樓。

이 記錄에 보면, 宋太宗이 읽어보고 門目이 번잡하다하여 수정하도록 했음을 밝히고 있고 興國2년3월에 李昉 등에게 野史小說을 취합하여 五百卷을 만들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책은 五十五部로 되어있는데 天部부터 百卉까지라고 하였고 興國3년 8월에 책이 만들어졌는데 책이름을 『太平廣記』라 한 것과 太平興國 6年(981)에 敎旨를 받들어 雕印板했음을 明示하고 있다. 마지막부분에 “『廣記』鏤板頒天下，言者以爲非學者所急，收墨板藏太淸樓。”라고 하였는데, 後世 사람들은 이를 보고 “太淸樓”에 所藏만 되어 있고 流傳이 못 됐던 것으로

4) 함께 編書에 참여했던 13人は 다음과 같다.

扈蒙, 李穆, 湯悅, 徐鉉, 張洎, 李克勤, 宋白, 陳鄂, 徐用賓, 吳淑, 舒雅, 呂文仲, 阮思道.

5) 明 板本은 嘉靖 45年(1566年) 正月에 十山 談愷氏에 의해 重刻印行되었다. 明 板本은 手抄本을 底本으로 校正補闕하여 刊行했기 때문에 宋初板本과는 좀 차이가 있다. 明 板本の 서문 참조. 明本은 談本 외에도 明活字本(1567~1572), 明萬曆許刻本(1573~1619), 明沈氏野竹齋抄本 등이 있다.

6) 淸板本은 淸 高宗 乾隆 18年(1753) 8월에 黃晟氏에 의하여 刊行되었다. 本 板本은 明板本을 底本으로 하였고 일부 오류를 修補하였다. 淸本은 黃本외에도 淸嘉慶坊刻本(1806)이 있다.

보고 있다. 明 板本の 서문에도 “…言者以爲廣記非後學所急 收板藏太清樓 於是御覽盛傳 而廣記之傳鮮矣…”⁷⁾라고 하여 후학들이 급한 바가 아니어서 “太清樓”에 소장만 하고 盛行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이나 한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이를 根據로 『太平廣記』가 求得하기조차 어렵게 되고 悲運으로 성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文獻을 살펴보면 北宋時期에 많이 流傳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北宋仁宗慶歷元年(1041)에 編成된 『崇文總目』에서 『太平廣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太平廣記』에 대한 最初의 著錄이다.

宋人 袁文이 쓴 『瓮牖閑評』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唐太宗特工書，聞右軍蘭亭眞迹，求之，得其他本。知第一本在廣州僧處，難以力取，故令人詐僧，果得之。其說如此。而宋景文公『鷄跖集』亦云：“余幼時讀『太平廣記』，見唐太宗購蘭亭帖，蓋譌以出之，輒歎息曰：蘭亭若是貴耶！……”

宋나라 景文公은 宋祁를 말하는데 그는 公元 998년에 태어났다. 즉 眞宗 趙恒이 등극한 그해가 된다. 그가 “幼時”때면 眞宗 前期가 된다. 宋祁가 眞宗 前期에 어린 나이에 벌써 『太平廣記』를 읽은 것이다.

仁宗(趙禎)天聖九年(1031)에 王辟之는 『澠水燕談錄』卷九 「雜錄」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神宗顧左右：“青脣何事？”皆不能對，乃以問趙元老。元老奏：“不經之語，不敢以聞。”神宗再諭之，元老誦『太平廣記』云：“有睹隣夫見其婦吹火，贈詩曰：‘吹火朱脣動，添薪玉臂斜。遙看煙里面，恰似霧里花。’其婦告夫曰：‘君豈不能學也？’夫曰：‘汝當吹火，吾亦效之。’夫乃爲詩曰：‘吹火青脣動，添薪墨院斜。遙看煙里面，恰似鳩鵲茶。’”元老之強記如此，雖怪僻小說，无不該覽。

神宗이 左右에 “青脣”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趙元老에게 물으니 趙元老가 『太平廣記』卷25에 나오는 <鄰夫>의 이야기를 줄줄 외우면서 “青脣”의 출처를 밝혔다는 내용인데, 趙元老가 『太平廣記』에 대해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元豐年間이면 1078년부터 1085년 사이를

7) 『太平廣記』明板本(十山談愷氏 板本) 序文.

말하는데 그 當時 『太平廣記』가 士大夫계층에서 많이 流傳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蘇軾文集』卷六八 「題跋·書鬼仙詩」에 보면,

又記『太平廣記』中，有人爲鬼物所引入墟墓，皆華屋洞戶，忽爲劫墓者所驚，出，逐失所見。但云“蕪花半落，松風晚清”。吾每愛此兩句，故附之書末。

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蘇軾은 『太平廣記』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뜻을 보면 한 사람이 귀신에게 引導되어 폐허된 묘지에 이르렀는데 모두 화려하게 꾸며졌고 묘지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갑자기 묘지를 털고 있는 자를 보게 되어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간곳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성한 꽃들이 반은 떨어지고 송풍은 이 한 밤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蕪花半落，松風晚清)”라는 시구를 자기가 좋아해서 책의 말미에 적는다고 했다. 이것은北宋의 大文豪가 『太平廣記』를 읽었다는 證據가 되며 특히 文中에서 引用한 “蕪花半落，松風晚清”은 『太平廣記』卷三三九 「崔書生」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다.

忽一日，一家大驚曰：“有賊至!”其妻摧崔書生于後門。才出，妻已不見。但自于一穴中，唯見蕪花半落，松風晚清。

위의 원문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놀라서 외쳤고 妻가 崔書生을 독촉하여 뒷문으로 나가게 했는데 금방 나가고 보니 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는 스스로 묘지에 갔는데 그곳에는 “무성한 꽃들이 반은 떨어지고 송풍은 이 한 밤을 시원하게 해줄(蕪花半落，松風晚清)”뿐이었다는 내용이다. 蘇軾은 “蕪花半落，松風晚清”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의 文章에 그대로 引用한 것이다.

蘇軾(1037-1101)의 字는 子瞻이고 號는 東坡居士, 고향은 四川眉山이다. 그는北宋시기의 大文豪로 중국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찍이 翰林學士, 禮部尙書 등 벼슬을 지냈고 大部分時間은 地方官吏로 지냈다. 政治에서 挫折을 받아 지방에 있던 文人이 『太平廣記』를 읽었다는 사실은 『太平廣記』가

鄉間에도 많이 流傳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葉夢得(1077-1148)의 『却掃篇』에 보면,

予所見藏書之富者，莫如南都王仲至侍郎家。其目至四万三千卷，而類書之卷帙浩博 如『太平廣記』之類，皆不在其間。雖秘府之盛，无以踰之。……宣和中御前置局求書時彥朝已卒，其子問以鎖庫書獻。詔特補承務郎，然其副本具在。建炎初，問渡江，書盡留睢陽第中，存亡不可知，可惜也!

라는 기록이 있는데 文中에 나오는 王仲至는 河南 南都사람이다. 기록에 의하면 王仲至는 『太平廣記』와 같은 책들을 말고도 四万三千卷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방의 일개 書藏家가 卷帙浩博한 『太平廣記』를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北宋時期에 『太平廣記』가 士大夫는 물론, 文人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읽혀졌음을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위에서 인용한 “『廣記』鏤板頒天下，言者以爲非學者所急，收墨板藏太清樓。”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 “『廣記』鏤板頒天下”라고 했는데 이것은 『太平廣記』를 鏤板해서 사회에 배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太平廣記』는 일단 多量으로 刊行되고 나서 流傳되다가 刊行을 멈추고 墨板을 太清樓에 깊숙이 넣어둔 것 같다. 그 當時 刻本은 회귀했을 수 있지만 抄本이 흥행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太平廣記』가 누구를 통해 언제 한국에 傳來되었는지는 지금까지 文獻記錄에서 찾아볼 수 없다. 『太平御覽』과 『文苑英華』의 한국 流入記錄은 상당히 뚜렷하다. 『高麗史』世家에 이르길 「[宣宗七年 十二月 壬辰]宋賜文苑英華集」이라 하였다. 宣宗七年 壬辰年은 西紀 1090年으로 『文苑英華』의 刊行年度가 982년임을 감안할 때 약 100여년 만에 流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高麗史』卷11, 世家, 肅宗條에는 「[肅宗6年 6月] 辛卯如奉恩寺, 丙申, 王瑕吳延寵自宋, 帝賜王太平御覽 一千卷」이나 되었는데, 肅宗6년은 西紀1101년으로 이 때 『太平御覽』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太平御覽』과 『文苑英華』의 流入記錄은 뚜렷한 반면 『太平廣記』에 대한 記錄은 정확하지 못하다.⁸⁾ 張德順은 『翰林別曲』의

8)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아세아문화사, 2001, 28쪽.

制作年代를 고종 2~3년경이라 본다면 『太平廣記』의 이입은 高麗 肅宗에서 高宗 사이로 볼 수 있다⁹⁾고 했고, 朴晟義는 『太平御覽』이 肅宗 六年에 들어와 있었음을 감안하여 『太平廣記』도 이와 같이 들어 왔을 것 같다고 추측을 했으며,¹⁰⁾ 金鉉龍도 『太平御覽』이 肅宗 六年(1101년), 그러니까 刊行 100餘年 후에야 수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太平廣記』는 그 以後, 즉 高麗 肅宗에서 高宗 사이인 西曆 1100~1200년간에 傳來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¹¹⁾ 한국 학자들은 주로 『翰林別曲』의 制作年代와 『太平御覽』의 流入年代를 근거로 『太平廣記』의 傳來시기를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다.

北宋과 高麗의 當時 交流를 살펴보면, 北宋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高麗와의 교류가 가장 빈번했으며, 高麗와의 서적의 교류 또한 그 규모가 가장 컸다.¹²⁾ 使節, 法僧, 留學生, 商人 등의 往來와 더불어 많은 서적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사절단의 인원으로 중국에 건너가게 되는 使臣들은 往來할 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학자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중국의 사정을 알았고, 간접적으로는 중국의 서적을 贈呈받는다든가 또는 구입한다든가 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견문을 넓혔다.¹³⁾ 『高麗史』에 보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선사받은 돈과 비단은 수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다.¹⁴⁾

는 기록이 있는데 이들 書籍에는 大藏經, 佛經, 文苑英華, 太平御覽, 王安國詩集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太平廣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宋에서 전래된 書籍 가운데 기록에 남아 있는 書籍은 실제로 傳來한 서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使行과 宋商의 내왕이 합 200회를 넘으며, 특히 入宋한 高麗의 사행이 50회를 넘으며, 그 인원수는

9)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3, 121쪽 참조.

10) 朴晟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集文堂, 1986, 69쪽 참조.

11) 金鉉龍, 위의 책, 40~41쪽 참조.

12) 한미경, 「고려와 북송의 서적교류 연구」, 『書誌學研究』, 第10輯, 書誌學會, 793쪽 참조.

13) 정형우, 『조선시대의 서적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82, 62~63쪽.

14) 『高麗史』권 95열전 제8 <정문>.

적어도 5천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¹⁵⁾ 그들이 高麗에 가져온 書籍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高麗가 중국서적을 수입하는 方式은 일반적으로 高麗 使臣이 중국에서 필요한 서적을 要請 또는 請賜하는 方式, 宋이 高麗 使臣에게 贈呈하는 方式, 宋의 使臣이 高麗에 와서 賞賜해 주는 方式, 中國商人들이 往來하면서 高麗에 가져다주는 方式, 高麗의 승려나 文人들이 중국에서 책을 구해오는 方式 등 다양한 方式이 있었다.

北宋도 高麗와의 交流를 중요시 여겨왔는데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北宋 初期부터 使臣을 高麗에 보내왔다. 羅願의 『新安志』6 敍先達 「呂侍郎」편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呂侍郎文仲 字子臧 新安人 南唐時 第進士 爲大理評事 歸朝 累遷少府監丞 修太平御覽廣記文苑英華 轉著作佐郎 太宗聽政之暇 日閱經史 患顧問闕人 太平興國八年 始以文仲爲侍讀…嘗使高麗 清潔無所求 遠人悅之 每使至 必詢其出處 時呂端呂祐之 亦嘗爲使 三人皆寬厚文雅國主王治 嘗對使者劉式語 及中國用人 必應以族望 如唐之崔盧李鄭者式言惟賢是用 不拘族姓 治曰 何姓呂者多君子也

앞부분에서는 侍郎 呂文仲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 呂文仲이 『太平御覽』, 『太平廣記』, 『文苑英華』를 편찬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呂文仲은 清潔하고 욕심이 없고 寬厚文雅한 사람이어서 같이 高麗에 갔던 呂端과 呂祐之와 더불어 高麗王으로부터 “呂氏성을 가진 사람들은 군자가 많다”는 평을 받기도 했음을 밝히고 있다. 呂文仲이 高麗에 간 時期를 太平興國八年이라고 했으니 서기 983년이 되는 해다. 『太平廣記』가 發刊되지 2년 뒤의 일인데 『太平廣記』의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이 『太平廣記』에 대해 함구무언하고 전혀 언급이 없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거로 될만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呂文仲 외에도 北宋의 使臣들이 高麗에 다녀간 기록이 많이 보인다. 서기 983년에 孔維(928~991)가 李巨原과 함께 高麗에 간 기록,¹⁶⁾ 986년에 諱國華(957~1011)가 송의 거란 정벌을 위한 高麗에의 조병을 요청하기 위해 高麗에 파

15) 金海宗, 「高麗와 宋의 交流」, 『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지식산업사, 2000, 107쪽 참조.

16) 王稱, 『東都事略』113, 열전96, 「孔維」편 참조.

견된 기록,¹⁷⁾ 990년 10월에 柴成務(934~1004)가 일개월간 高麗에 묵은 기록,¹⁸⁾ 1078년에 安燾가 高麗에 간 기록¹⁹⁾ 등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다.²⁰⁾

그렇다면 『太平廣記』는 언제 누구에 의해 高麗에 傳來됐을까? 이것을 밝히려면 많은 考證이 必要하다. 文獻記錄이 缺乏된 상황에서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 朴寅亮의 경우를 들어 일부 端緒를 提供하고자 한다.

『高麗史』권 제95에 보면 朴寅亮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

박인량의 자는 대천(代天)이니 죽주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은 평산 사람이라고도 한다.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34년(문종 34년, 1080년)에 호부 상서 류홍(柳洪)과 함께 송 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중국의 절강 근해에서 구풍(颶風)을 만나서 탕던 배가 하마터면 전복될번 하였다. 송 나라에 도착하여 본즉 레물로 가지고 간 토산물의 대반이 류실되었으나 송 나라 임금의 리해를 얻어 『高麗 왕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는 국서를 보냈으므로 사신들이 처벌을 면하였다. 그 때 또 김근(金覲)이란 사람도 일행 중에 있었는데 송 나라 사람들이 박인량과 김근의 저작한 편지, 표문(表), 장계(狀), 제사(題), 시(詠) 등의 글을 보고 찬양하기를 마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시(詩)와 문(文)을 수록하여 소화집(小華集)이란 책까지 간행하게 되었다.²¹⁾

위에서 보면, 1080년에 朴寅亮이 호부상서 柳洪과 함께 使臣으로 北宋에 갔음을 알 수 있다. 1080년이면 宋·麗의 國交가 재개 된지 9년이 되던 해이고 50여 년간 중단되었던 兩國 사행의 往來가 民官侍郎 金梯의 入宋(1071년)으로 회복되던 시기였다.²²⁾ 宋나라는 禮를 갖추어 高麗 使者를 대했는데 當時 杭州에서 官職에 있던 蘇軾이 高麗 使臣을 接待하는 데만 二萬四千六百餘貫을 썼

17) 尹洙, 『河南先生文集』, 「故太中大夫右諫議大夫…諱公(國華)墓誌銘」 참조.

18) 楊億, 『武夷新集』, 「宋故大中大夫行給事中…柴公(成務)墓誌銘」 참조.

19) 王稱, 『東都事略』96, 열전79, 「安燾」편 참조.

20) 위의 기록들은 張東翼의 『宋代麗史資料集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21) 北譯『高麗史』, 第8冊(1964), 신원서 1991. 274~275쪽

22) 金海宗, 「高麗와 宋의 交流」, 『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지식산업사, 2000, 8, 87쪽 참조.

金渭顯, 『高麗時代對外關係史研究』, 景仁文化社, 2004, 2. 179쪽 참조.

다²³⁾고 하는 것을 보아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蘇軾은 한 때 高麗와의 往來를 꺼려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²⁴⁾ 高麗 使臣를 接待하는 데는 게을리 하지 않은 것 같다.

朴寅亮은 北宋時期에 중국을 다녀간 사람 중에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²⁵⁾ 朴寅亮의 글은 그 當時 北宋 사람들의 贊揚을 받았으며 그와 金근²⁶⁾의 글을 모아 『小華集』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詩文에 뛰어났던 것이다. 中國文士들은 韓國文士들의 漢文化修養에 대해 찬탄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과 “以文會友”하면서 늘 筆談으로 학문을 交流하였다. 北宋의 文士 張中은 朴寅亮이 使臣의 身分으로 중국에 갔을 때 明州에서 만나 시를 주고받으면서 筆談을 나누었었다. 王辟之의 『澠水燕談錄』卷九「雜錄」의 한 대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元豐中，高麗使朴寅亮至明州，象山尉張中以詩送之，寅亮答詩序有“花面艷吹，愧隣婦青脣之斂；桑間陋曲，續郢人白雪之音”之語。有司劾：“中小官，不當外交夷使。”奏上，神宗顧左右：“青脣何事？”皆不能對，乃以問趙元老。元老奏：“不經之語，不敢以聞。”神宗再諭之，元老誦『太平廣記』云：“有睹隣夫見其婦吹火，贈詩曰：‘吹火朱脣動，添薪玉臂斜。遙看煙里面，恰似霧里花。’其婦告夫曰：‘君豈不能學也？’夫曰：‘汝當吹火，吾亦效之。’夫乃爲詩曰：‘吹火青脣動，添薪墨腕斜。遙看煙里面，恰似鳩槃茶。’”元老之強記如此，雖怪僻小說，无不該覽。

먼저 年代를 考察해보면, 첫머리에 元豐이라 하였는데 元豐이면 1078년부터

23) 그 當時 二万四千六百餘貫이면 몇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다.

王水照, 『蘇軾研究』, 河北教育出版社, 1999, 5, 320쪽 참조.

24) 『東坡全集』卷五八, 奏議「乞禁商旅過外國狀」; 『蘇東坡全集』奏議集 卷十四, 「論高麗買書利害札子三首」; 『蘇東坡全集』奏議集 卷八, 「論高麗進奉狀」 등을 참조.

25) 近年에 중국에서 發行된 『中外文學交流史』는 古代 中國을 다녀간 한국의 대표적 인물을 시기별로 거론하였는데 唐朝에는 崔致遠, 金夷魚, 金可記가 꼽혔고 宋代에는 朴寅亮이 꼽혔으며 元朝에는 李齊賢이 꼽혔다.

周發祥·李岫 主編, 『中外文學交流史』, 湖南教育出版社, 1999, 210쪽 참조.

26) 『補遺高麗史列傳』에 보면 柳洪과 朴寅亮이 사신으로 송나라에 갈 때 金근(金觀)도 같은 사신으로 가서 朴寅亮과 함께 시문(詩文)으로 이름을 떨쳐 宋나라에서 그와 朴寅亮의 시문을 모은 문집 『小華集』을 발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補遺高麗史列傳』, 高麗崇義會, 1997, 148쪽 참조.

1085년까지 8년 사이다. 『高麗史』의 문종 34년(1080년)에 朴寅亮이 호부 상서 류홍(柳洪)과 함께 宋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는 기록을 보아서는 張中과 明州²⁷⁾에서 만나 시를 주고받으면서 筆談을 나눈 年代가 아마도 1080년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 당시 明州는 국제통상의 主要港口였다. 그 전에는 高麗 使臣들이 登州로 入國했지만 熙寧(1068년)부터는 明州로 入國했다.²⁸⁾ 朴寅亮도 明州로 入國했을 것이며 明州에서 張中을 만난 것이 分明하다. 象山縣尉 張中이 시를 지어 朴寅亮에게 주니 그 화답으로 朴寅亮이 또한 시를 지어 張中에게 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위의 기록은 귀중한 資料적 價値가 있는 기록이다.

朴寅亮의 詩중에 “靑脣”이 언급되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는 『太平廣記』卷二五一「鄰夫」에서 나오는 일화다. 다음은 「鄰夫」의 原文이다.

有觀鄰人夫婦相諧和者 夫自外歸 見婦吹火 乃贈詩曰 吹火朱脣動 添薪玉腕斜 遙看煙裏面 大似霧中花 其妻亦候夫歸 告之曰 每見鄰人夫婦極甚多情 適來夫見婦吹火作詩詠之 君豈不能學也 夫曰 彼詩道何語 乃詠之 夫曰 君當吹火爲別製之 妻亦效吹 乃爲詩曰 吹火靑脣動 添薪黑腕斜 遙看煙裏面 恰似鳩槃茶 (出笑言)²⁹⁾

그 뜻을 보면, 옆집의 부부가 금슬이 좋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 처가 입바람으로 아궁이의 불을 붙어 살리는 것을 보고 시를 읊어 주었고 시에서 처를 미인에 비유했다. 그것을 시샘한 이웃집 여자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남편더러 옆집 남편처럼 자기한테도 시를 지어달라고 했고 남편은 아내더러 옆집의 여자처럼 불을 붙어보라고 하고는 제 주체를 모르는 아내가 옆집의 미인과 비기는 것이 알미웠던지 옆집 남편의 시를 모방하여 대조적으로 시를 지어 읊어 주었다. 두 수의 시를 對照해보면 참 흥미롭다.

남편A

남편B

27) 지금의 浙江省 鄞縣.. 唐나라 때는 鄞州라고 하였으나 宋나라 初에 明州로 地名을 바꾸었음.

28) 『續資治通鑑長編』卷三三九元豐六年九月庚戌條에 보면, “天聖以前, (高麗)使由登州入; 熙寧以來, 皆由明州”라고 했다.

29) 『文淵閣四庫全書』(小說類), 臺灣商務印書館發行, 619~620쪽.

吹火朱脣動	吹火青脣動
添薪玉腕斜	添薪黑腕斜
遙看烟裏面	遙看煙裏面
大似霧中花	恰似鳩檠茶

남편A(옆집 남편)는 “吹火朱脣動”이라 했고 남편B(이웃집 남편)는 “吹火青脣動”이라고 했다. “붉은 입술(朱脣)”과 “푸른 입술(靑脣)”은 정 반대의 의미인데 “朱脣”은 미녀의 입술을 뜻하고 “靑脣”은 추한 여자의 입술을 뜻한다. 뒤의 시구를 보면 “옥 같은 손목(玉腕)”과 “검은 손목(黑腕)”이 대조적이고 “안개속의 꽃(霧中花)”과 “구만다(鳩檠茶)³⁰⁾”가 대조적이다.

朴寅亮이 張中에게 써준 시에 보면 “花面艷吹, 愧隣婦靑脣之斂; 桑間陋曲, 續郢人白雪之音”라고 되어있는데 “花面艷吹”는 미모의 옆집 여인이 요염하게 입바람으로 불을 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愧隣婦靑脣之斂”은 이웃집 여인이(남편이 읊어준 시를 듣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추한 입술을 다문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詩句의 “靑脣”은 위의 남편B가 자기 처한테 지어준 “吹火靑脣動”의 “靑脣”에서 유래된 것이 분명하다. “桑間陋曲, 續郢人白雪之音”은 이와 같은 속세의 노래를 옛 노래에 이어 부른 것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靑脣”과 관련된 일화가 巷間에 많이 떠돌았던 것 같다.

놀라운 것은 朴寅亮이 張中과 주고받은 시가 神宗에게까지 上奏되어 神宗의 궁금증을 유발했고 또 그것을 趙元老가 『太平廣記』의 한 대목을 들어 신종의 궁금증을 풀어준 사실이다. 일개 使臣의 시가 중국 皇帝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趙元老가 『太平廣記』에서 나오는 시구를 들어 朴寅亮의 “靑脣”의 출처를 밝혔다는 것은 朴寅亮이 확실히 『太平廣記』의 「鄰夫」 일화에서 素材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朴寅亮은 『太平廣記』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朴寅亮이 1080년에 처음 北宋에 간 것은 아니다. 1071년에 金梯와 함께 北宋에 간 기록이 있어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王闢之의 『澠水燕

30) 『漢語大辭典』의 해석을 보면 “구만다(鳩檠茶)”는 佛藏經에서 나오는 用語인데 웅기형태와 흡사한 瓜類이다. 흔히 못생긴 것에 비유해서 쓰인다.

談錄』9「雜錄」에 보면,

高麗 海外諸夷中 最好儒學 祖宗以來 數有賓客貢士登第者 自天聖後通州數十年不通中國 熙寧四年 始復遣使脩貢…使臣御事民官侍郎金第與同行 朴寅亮詩尤精 如泗州龜山寺詩云 門前客棹洪濤急 竹下僧碁白日閑 等句 中土人亦稱之 寅亮嘗爲其國詞臣 以罪廢久之 從與金第使中國³¹⁾

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高麗는 해외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儒學을 가장 좋아했고 天聖(1023~1032)이래로 수십 년 동안 來往이 없다가 熙寧 4년(1071)에야 使臣을 보내면서 來往이 恢復되었고 御事民官侍郎 金梯와 同行한 朴寅亮이 시에 뛰어남을 찬탄하면서 “詞臣”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 『高麗史』에는 보이지 않고 『高麗史節要』에 “三月遣民官侍郎金梯奉表如宋初黃愼之遷移牒福建請備禮朝貢至是遣棹由登州入貢”³²⁾이라고 하여 金梯만 거론하고 있다. 1071년에 朴寅亮이 金梯와 함께 北宋에 使臣으로 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이미 北宋의 文士들과 交流하면서 『太平廣記』를 求得했을 수도 있다. 李奎報는 朴寅亮이 1071년에 중국에 갔을 때 泗州 龜山寺에서 지은 시 두句를 『동국이상국집』에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참정(參政) 박인량(朴寅亮)이 사천(泗川) 구산사(龜山寺)에 쓴 시에,
문 앞 손의 돛대엔 큰 물결이 일고
대나무 밑 중의 바둑엔 백일이 한가하구나
하였는데, 우리 나라가 시로 중국을 울린 것은 이상 세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다. 문장이 나라를 빛내는 것이 이와 같다.³³⁾

원문에서 지명을 사천(泗川)이라고 하였는데 오기인 것 같고 사주(泗州)가 정확하다. 여기서 말한 세 사람이란 朴寅亮을 포함한 최치원(崔致遠), 박인범(朴仁範)을 말한다. 시로 중국을 울린 것은 이 세 사람에서 비롯됐다고 했고 그

31)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5, 484쪽에서 재인용.

32) 『高麗史節要』, 亞細亞文化社, 1973, 146쪽.

33) 李奎報, 『동국이상국집』부록, 「백운소설」, 민족문화추진회, 1979, 10, 250쪽. 原文: 參政 朴寅亮 題泗川龜山寺詩云 門前客棹洪濤急 竹下僧碁白日閑 我東之以詩鳴於中國 自三子始 文章之華國 有如是夫.

들은 시로 나라를 빛냈다고 했다. 『대동야승』에 수록된 「해동잡록」에 보면,

…高麗(高麗) 참정(參政) 박인량(朴寅亮)이 사주 구산사(泗州龜山寺)에서 지은 시에, “탑 그림자는 거꾸로 강 물결 속에 박혀 있고, 종소리는 달을 흔들어 구름 속에 떨어진다.”는 구는, 모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시로 중국에 이름나게 된 것은 이 군자(君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³⁴⁾

李奎報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朴寅亮의 시를 소개하고 또 거의 비슷한 평을 달고 있다. 다만 시의 내용이 다른데 「해동잡록」의 시는 바로 「백운소설」에 수록된 시의 앞부분의 시다. 이것은 淸代의 厲鶚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는 『歷代吟譜』에 의거하여 “탑 그림자는 거꾸로 강 물결 속에 박혀 있고, 종소리는 달을 흔들어 구름 속에 떨어진다(塔影倒江翻浪底 磬聲搖月落雲間).”가 “문 앞 손의 돛대엔 큰 물결이 일고, 대나무 밑 중의 바둑엔 백일이 한가하구나(門前客棹洪波急 竹下僧碁白日閑)”의 앞 구절을 밝히고 있다. 이 시는 칠언율시로 되어있으며 시 제목은 <使宋過泗州龜山寺>이다.³⁵⁾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朴寅亮이 1071년에 중국에 갔던 사실이 재확인된다.

朴寅亮이 『太平廣記』를 중국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高麗에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太平廣記』의 내용을 시에 능숙하게 쓸 정도로 熟知하고 있는 것을 보면 高麗에서 이미 『太平廣記』를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北

34) 『대동야승』 권22, 「해동잡록」4, 민족문화추진회, 1971, 9, 445쪽 原文: 高麗朴參政寅亮 題泗州龜山寺詩 塔影倒江翻浪底 磬聲搖月落雲間之句 皆載方輿勝覽 吾東人之以詩鳴於中國 自諸君子始

35)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 485쪽 참조.
崔滋의 『補閑集』에 보면 朴寅亮이 奉命使臣으로 중국에 들어갈 때 이르는 곳마다 시를 남겼다고 하면서 <금산사(金山寺)>라는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시에 <使宋過泗州龜山寺>라는 시가 위 두 구절, 아래 두 구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정홍교(북한)가 지은 『조선문학사』(2) (高麗시기문학)에도 『사주 구산사에서』란 제목으로 시의 전문이 실려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고증이 필요한 것 같다.

崔滋, 『補閑集』(朴性奎 譯), 啓明大學校出版部, 1984, 12, p48~49 참조.

정홍교, 『조선문학사』(2) (高麗시기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127~128 참조.

宋時期에 『太平廣記』가 流傳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朴寅亮이 중국의 文士들을 통해 『太平廣記』를 求得하여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使臣의 신분으로 宋나라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방대한 『太平廣記』를 다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當時 北宋에서 『太平廣記』가 流傳되었다는 점, 北宋과 高麗의 문화적 交流가 빈번했고 使節, 法僧, 留學生, 商人 등의 往來와 더불어 많은 서적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 高麗 使臣들은 往來할 때 北宋의 文士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 北宋의 使臣들도 建國初期부터 高麗에 往來한 점, 그리고 특히 朴寅亮이 『太平廣記』를 熟知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080년 이전에 『太平廣記』가 高麗에 傳來된 것으로 추측된다.

Ⅲ. 『太平廣記』의 한국적 수용

위의 考證을 통해 그 當時 朴寅亮이 『太平廣記』를 읽어서 熟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로 애독자들이 많았는데 高宗朝에 문인들에 의해 애독되었다는 사실은 『高麗史』에 실린 高宗朝諸儒作으로 알려진 『翰林別曲』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翰林別曲』第二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太平廣記 四百餘卷, 太平廣記 四百餘卷 위 歷覽景記 엇더흐니잇고³⁶⁾

이 기록을 보면 高宗年間에 『太平廣記』가 士大夫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체가(景幾體歌)인 『翰林別曲』은 양반계층에서 애독되었던 作品이다. 『翰林別曲』의 創作時期는 文獻記錄에 보이지 않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高宗年間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³⁷⁾ 『翰林別曲』의 作者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兪升旦, 李仁老, 李

36) 『高麗史, 志, 樂二』.

37) 이와 관련해서는 張德順,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60 ; 趙潤濟, 『國文學史概說』, 乙酉文化社, 1967, 3 ;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二友出版社, 1975, 3 ; 金善祺, 「<翰林別曲>의 作者와 創作年代에 關한 考察」, 『語文研究』12, 語文研究會, 1983 ; 金圭泰, 『韓國詩歌研究』, 高麗원, 1986, 7, 등을 참조할 수 있음.

公老, 李奎報, 陳渾, 劉冲基, 閔光鈞, 金仁鏡 등 등장인물이 作者인 것이 확실하다면 이들이『太平廣記』를 읽었을 것이며 술자리에서도『太平廣記』에 대해 논했을 것이 분명하다. 『太平廣記』에 관한 高麗 때의 기록은『翰林別曲』외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一然(1206~1289)의『三國遺事』卷 第五「金現感虎」,³⁸⁾條에『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는 申屠澄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一然은「金現感虎」에서『太平廣記』卷 429 所載 說話인「申屠澄」이야기를 同載하고는 比較論評하고 있다.³⁹⁾ 이 事實은 그가『三國遺事』를 저술하기 전에 이미『太平廣記』를 精通했음을 말해준다.

朝鮮時代에는『太平廣記』를 다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만큼『太平廣記』에 대한 관심이 컸고 文獻에서도 가끔씩 언급되고 있다. 明宗, 宣祖, 仁朝 시대에 吏朝 判書를 지냈던 柳夢寅의『於野談』에,

이홍남(李洪男)과 나세찬(羅世續)이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며, 「소(簫)」자로 운을 삼았다. 매 편 아래에 「이(李)」자와 「나(羅)」자를 썼는데, 맨 나중에 이홍남이 「소(簫)」를 차운(次韻)하여 쓰자 나세찬이 마침내 각필(閣筆)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나리리나 나리리, 양인 번갈아 태평소 부노라” 나는 늘 이 구절을 기특하게 여겼었는데, 그 후 중국에서『태평광기(太平廣記)』를 얻어보니, 「나리(羅李)」로 통소 소리를 삼은 것이 당나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문장하는 선비들은 모두『太平廣記』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홍남도 일찍이 이에 중사하였던 것이다. (문장『한림별곡(翰林別曲)』에서 칭하기를『太平廣記』오백권이라고 하였는지라 내가 항상 그 전질을 얻어 보고 싶었다. 얻어서 보니 그 글이 고문에 가까워 자못 간략했지만 당나라 사람들의 문(文)은 많이 비약(卑弱)하여 시에는 훨씬 못 미쳤다. 한퇴지(韓退之)가 문장의 쇠약함을 떨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⁴⁰⁾

38) 『수이전』에 「호원」이라는 제목으로 「金現感虎」와 같은 素材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수이전』은 최치원이 저술했다는 설도 있고 박인량이 저술했다는 설도 있다. 박희병의 고찰에 의하면 『수이전』은 애초 최치원이 저술한 책인데, 훗날 박인량이 증보(增補)한 바 있다고 한다.

박희병,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3, 129쪽 참조.

39) 一然, 『三國遺事』(李丙燾 譯), 新華社, 1983.9. 409쪽 참조.

40) 柳夢寅, 『어우야담』(柴貴善·李月英 譯註), 한국문화사, 1996. 12. 108쪽. 原文: 李洪南與羅世續 相酬唱 以簫字爲韻. 逐篇下書李書羅 最末李次簫字曰「羅李李 羅羅李李 兩人相作太平簫」羅世續逐閣筆. 余每奇其句 后得太平廣記於中原 羅李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모두 『太平廣記』를 읽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柳夢寅이 『翰林別曲』에서 太平廣記五百卷이라고 한 것을 보고 全秩을 얻어 보려고 하던 차에 얻어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柳夢寅도 『太平廣記』를 읽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후 중국에서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얻어 보니(后得太平廣記于中原)”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중국에서 『太平廣記』를 얻어온 것 같다. 실제로 柳夢寅은 1592년 修撰으로 質正官이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는데 아마도 그때 『太平廣記』를 求得한 것 같다. 宣朝, 光海君, 仁朝 때의 사람인 李埴의 『澤堂集』卷 15 雜著에도,

『太平廣記』之類, 間有男女之風謠, 尙可觀採, 其他荒怪之說, 聊以破閑止睡.

라는 기록이 있다. 『太平廣記』에는 중간중간에 민요들이 들어있어 그나마 볼 수 있으며 다른 공허하고 怪異한 이야기들은 한가한 틈을 보내며 읽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평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卷27)에 보면,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와 종친(宗親)·재추(宰樞)들이 풍정(豊呈)을 바치었다. 임금이 양성지(梁誠之)에게 이르기를, “경(卿)이 『太平廣記』를 아는가?”하고, 『太平廣記』중의 말을 이야기하였다.⁴¹⁾

世祖가 梁誠之에게 『太平廣記』를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太平廣記』속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王조차도 큰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전(雲英傳)』에 작중인물이 『太平廣記』를 읽는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진사님이 층계를 거쳐 굽은 난간을 따라 몸을 가다듬고 들어오실 제, 저

爲簫之語 出自唐人. …我國文章之士 皆攻太平廣記 故洪男早從事於斯(文翰林別曲稱太平廣記五百卷云 余每欲得全秩觀之 及觀之 其文近古頗簡 而唐人之文 多卑弱不及詩遠. 韓退之欲振其衰 有以也)

41) …上與中宮 御仁政殿 王世子與宗親宰樞 進豊呈 上謂梁誠之曰 卿知太平廣記 其語廣記中之言…

는 사창을 열어 놓고 玉燈을 밝혀 놓고 앉아서, 거북에 새긴 金爐에다 향을 사르고 유리같은 書案에다 태평광기 한 권을 펴들고 있다가, 진사님이 옴을 보고 일어나 맞이 하고 절을 하니 진사님도 또한 답례를 하더이다.

이 한 대목을 통해서도 작자가 『太平廣記』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작중의 일개 부녀자가 『太平廣記』를 읽었다고 하니 남녀 구별 없는 독자층 및 當時 流傳정도를 알 수 있다.

『太平廣記』의 독자층을 보면 주로 儒學者와 知識人들이며 『太平廣記諺解』가 나온 뒤에는 궁중의 여인들도 독자가 되었다. 이른바 樂善齋本이라는 宮中 소장본 번역소설 속에는 『太平廣記諺解』가 들어있다. 조선시대 宮中の 妃嬪들이나 宮女들은 중국소설 번역물을 애독한 가장 확실한 독자들이었다.⁴²⁾

樂善齋本 『太平廣記諺解』는 寫本인데 9卷 9冊으로 되어있다. 9卷에 총 268篇의 설화가 실려 있다. 『太平廣記諺解』는 樂善齋本 말고도 覓南本이 있다. 覓南本은 전 5卷 5冊으로 되어있는데 覓南 金一根 教授가 소장하고 있다. 金鉉龍의 연구에 의하면⁴³⁾, 두 板本은 同一本이며 覓南本이 시대적으로 앞서 있고 樂善齋本은 覓南本보다 두 배가 넘는 양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轉寫를 거치면서 생긴 일임을 알 수 있다.

『太平廣記』는 世祖6년(西紀 1462년)에 成和仲이 編한 刊本을 한국에서 『太平廣記詳節』이라는 書名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成和仲은 마음에 드는 작품만 골라 縮約本 50권을 만들어서 출간했다. 그 縮約本은 국립 도서관에 一冊이 소장되어 있고, 특히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三冊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一冊이 첫 권이어서 그 출간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四佳亭 徐居正의 서문과 삼남 李承召의 序文이 실려 있고, 전편의 目錄이 收錄되어 있어서 그 全貌를 再構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이 책에는 800여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것은 필사본이 아니고 정교하게 간행된 판본임으로 상당히 流布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⁴⁾ 『太平廣記詳節』에는 <杜子春>, <崔書生>, <柳氏傳>, <霍小玉>

42) 金鉉龍, 『中國小說과 讀者』,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 韓國古小說研究會 編, 亞細亞文化社, 1994, 405쪽.

43) 金鉉龍은 두 板本の 表記를 자세히 對照하면서 두 板本이 同一本임을 證明하고 있다.

金鉉龍, 위의 책, 51~64쪽 참조.

傳>, <鶯鶯傳>, <謝小娥傳> 등 『太平廣記』의 著名한 작품들이 많이 실렸다. 이런 것을 보면 成和仲의 뛰어난 眼目을 알 수 있고 또 『太平廣記』의 『玉堂閑話』에는 수록되지 않은 <蕃中六畜>, <耶孤兒>, <胡王> 등 세 작품이 있는 것을 보면 『太平廣記』에 原來 있었던 작품들이 遺失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太平廣記詳節』의 寶貴한 文獻價値도 가늠할 수 있다.⁴⁵⁾ 『太平廣記詳節』은 어느 板本을 底本으로 하였을까? 중국 학자 張國風은 現存하고 있는 『太平廣記』의 板本은 明 嘉靖, 隆慶年間の 談愷本인데 그 먼저 즉 1462년에 나온 『太平廣記詳節』은 年代적으로 보아서 明板本과 無關하다고 했고 그러면서 宋校本(康熙年間孫潛의 校宋本 및 乾隆年間陳鱣의 校宋本)과 『太平廣記詳節』의 比較를 통해 『太平廣記詳節』의 底本은 宋本임을 밝혀냈다.⁴⁶⁾ 이것은 成和仲이 『太平廣記詳節』을 만들 當時 宋本이 流傳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成任은 『太平廣記』를 參考하여 『太平通載』80권을 刊行하기도 하였다.⁴⁷⁾

성호 이익(李瀾)(1681~1763)이 지은 『星湖塞說』에도 여러 곳에 『太平廣記』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星湖塞說』卷6 萬物門 <보석(寶石)>에 보면 『太平廣記』에서 이장무(李章武)가 얻은 보석에 대해 소개한 것을 인용하고 있으며 『星湖塞說』卷28 詩文門 <유향(遺響)>에서도 이익이 사백(詞伯, 시문을 잘 짓는 사람)한테 유향에 대해 물으니 사백은 유향에 대해 해석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太平廣記』에 나타나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밖에도 『대동야승』에 수록된 『패관잡기』에서도 어숙권(魚叔權)이 『太平廣記』를 보았다는 기록이 보이고⁴⁸⁾ 李睟光의 『芝峰類說』卷16 『諧謔條』에도 『太平廣記』와 관련된 記事가 보인다.

小說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장석(張錫)이 作文에 敏捷하여 줄거리를 인용한 것들에는 대부분 杜甫의 작품에서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그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太平廣記』

44) 尹河炳, 『譯註 古典小說 太平廣記 作品選』, 國學資料院, 1996, 459쪽 참조.

45) 張國風, 『韓國所藏『太平廣記詳節』의 文獻價値』, 『文學遺産』, 2002, 4. 참조.

46) 張國風, 위의 논문 참조.

47) 『成宗實錄』(成宗15年8月)(卷169)과 『국역 대동야승』(제22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 9, 405쪽.) 등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48) 『국역 대동야승』제4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 5, 540쪽 참조.

』에서 인용된 것으로, 대체로 그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⁴⁹⁾

이와 같이 자기의 글에 『太平廣記』의 내용들을 인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太平廣記』에 나오는 說話를 이용하여 詩句에 쓰고, 또는 그것들을 素材로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太平廣記』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다 알려져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고대 한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流傳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太平廣記』가 이 정도로 고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종일토록 부지런히 읽어도 피곤한 줄 모를 정도로 흥미가 넘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소설·설화의 根源이 되는 작품집이라는 부분, 『太平廣記』의 내용들을 다양한 素材로 쓸 수 있었다는 부분, 唐代以前 散失되었던 古籍의 面貌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등을 간과할 수 없다.

1996년에는 尹河炳이 『古典小說 太平廣記 作品選』을 譯註로 펴냈고 최근에는 중국 필기문헌 번역총서로 『太平廣記』原本을 김장환, 이민숙 등이 한글로 옮겼는데 총 21권으로 되어있으며 제 1책부터 제 20책까지는 각 책마다 원서의 25권 분량을 수록했다. 지금까지도 『太平廣記』에 대한 熱氣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 小說云 張錫作文敏捷 而用事多出杜撰 人有質之者必曰 出太平廣記 盖以其書世所穿也.

金鉉龍, 위의 책 45쪽에서 재인용.

IV. 『太平廣記』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太平廣記』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된 바가 있다. 金鉉龍은 『太平廣記』와 한국 설화, 소설과의 對比考察을 통해 영향관계를 밝혔고⁵⁰⁾ 徐張源은 『太平廣記』가 한국에 傳來된 이후 설화문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高麗 假傳에 많은 素材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⁵¹⁾ 金鉉龍과 徐張源은 설화의 영향 관계를 논할 때 共同히 一然의 『三國遺事』에서 나오는 <金現感虎>를 들어 『太平廣記』의 영향을 論及하고 있다. 金鉉龍은 <金現感虎>說話는 그 內容으로 보아 一然의 創意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一然이 『翰林別曲』이 지어진 高宗 때에 나이 10餘歲가 되는 셈이므로 『翰林別曲』의 諸儒들과 같이 『太平廣記』에 精通했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三國遺事』에 金現의 虎婚說話를 실으면서 『太平廣記』의 <申屠澄> 이야기를 同載하여 論한 것은 當時에 벌써 크게 그 影響을 입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一然이 <申屠澄> 설화를 同載할 정도로 그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록단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입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했다.⁵²⁾ 호랑이에 관한 설화 <申屠澄>은 唐代에 이미 形成된 것으로 한국 호랑이설화문학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一然이 <金現感虎>에 실은 <申屠澄> 이야기는 原文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주제와 인물 그리고 기본적인 이야기줄거리는 살리면서 반은 줄인 것이다. 하지만 『太平廣記』의 原文보다 申屠澄 妻가 범으로부터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과 3년간 살고 또다시 범으로 변해 사라지는 이야기의 전기적 색채를 더해 주고 있다.

김장환은 高麗시대에 전래된 『太平廣記』는 조선시대 이르러 중국 판본의 수입과 함께 원서를 축약한 축약본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마침내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본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당시 설화와

50) 金鉉龍, 위의 책 참조.

51) 徐張源, 『『太平廣記』東來之始末及其影響』, 『中國語文學』, 第7輯, 1984.5 참조.

52) 金鉉龍, 위의 책 참조.

소설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 독자층이 확대되었고 소설문학에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소설문학의 생성과 발달을 촉진했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李仁老의 『破閑集』, 李奎報의 『白雲小說』, 崔滋의 『補閑集』, 李齊賢의 『樸翁稗說』 및 林椿의 『麴醇傳』·『孔方傳』, 李奎報의 『淸江使者玄夫傳』 등을 예로 들면서 『太平廣記』는 이와 같은 잡록식 稗官문학과 假傳體 문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力說하고 있다.⁵³⁾

安炳國은 『太平廣記』의 영향관계에 대해 아주 仔細한 考察을 시도했다. 그는 『翰林別曲』으로부터 시작해 『雲英傳』, 『芝峰類說』, 『於于野談』, 『星湖僿說』, 『稗官雜記』, 『金鰲新話』, 『三國遺事』, 『崔致遠傳』, 『九雲夢』, 『周生傳』 등 작품들의 예를 세세히 들면서 영향관계를 밝혔다. 그는 『太平廣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설화와 소설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독자층을 확대시키고, 소설문학에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소설문학을 발달·촉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하고 있다.⁵⁴⁾

『太平廣記』는 한국의 訟事說話에도 많은 影響을 끼쳤다. 『太平廣記』와 한국 訟事說話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李憲洪에서 비롯된다. 그는 『韓國訟事小說研究』에서 송사소설 형성의 외래적 요인을 다루면서 한국의 송사설화와 『太平廣記』에 대해 언급했고 『太平廣記』所載 15편 작품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서 이야기 줄거리까지 설명해 놓았다. 그는 『太平廣記』의 송사이야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러한 송사이야기들이 『臨官政要』, 『牧民心書』, 『欽欽新書』 등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 그대로 발췌 수록되고 있는 예가 많다고 했다.⁵⁵⁾

『太平廣記』 171, 172권은 精察類에 속하는데 31편의 說話가 수록되어있다. 여기에 수록된 訟事이야기는 실사에 바탕을 두고 윤색·편집됨으로써 說話化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李憲洪은 每篇의 이야기가 모두 원출전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전설화의 창작이라기보다는 문헌기록의 실사적 내용을 항목별로 집대성하여 재편·수록한 설화집이라는 점; 작품제목이 인물명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물들은 대부분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 이야기 내용

53) 李昉 등 編著, 『太平廣記』(김장환·이미숙 外 옮김)서문(옮긴이의 말), 학고방, 2002.3. 참조

54) 安炳國, 『『太平廣記』의 移入과 影響』, 『은지논총』제6집, 2000. 참조.

55) 이헌홍, 위의 책, 130쪽 참조.

은 이들 인물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⁵⁶⁾ 이런 설화들은 관리들이 서민들의 고충을 살펴면서 송사에서 정확히 판결함으로써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총명한 관리들의 능력이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高麗時代 송사이야기를 살펴보면 『太平廣記』의 영향관계를 밝혀보기로 한다. 『高麗史』列傳에 송사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 이보림(李寶林) 송사설화는 『太平廣記』의 부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건을 해명하는 송사이야기와 그 구성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보림 송사설화의 내용이다.

이보림이 경산(京山)부사로 있을 때, 한 곳을 지나다가 어떤 부인이 남편이 죽어 울고 있었다. 이보림이 곡성을 유심히 들으니, 울고는 있는데 어떤 지 슬픔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부인을 잡아와서 문초하니 간부(奸夫)와 찢고 남편을 죽인 것이었다.⁵⁷⁾

이 이야기를 『太平廣記』의 『嚴遵』이야기와 對比해 보면 그 구성이 거의 같다. 한 부인이 남편이 죽어 울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슬픔이 없는 울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단서로 그 부인을 문초하여 奸夫와 찢고 남편을 죽인 사실을 밝힌다는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짜여져 있다. 다만 죽은 남편이 머리에 대못이 박혀있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와서 丁若鏞에 의해 전승되고 있고 또 박영(朴英) 설화로 전승되기도 하는데 박영 설화는 2단계 발전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 작품을 비교하면서 영향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丁若鏞의 『欽欽新書』에 <聞聲知殺>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무려 다섯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다 부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건을 해명하는 송사이야기들이다. 그 중에 위의 이보림 설화도 포함되어 있다.

高麗 李寶林宰京山府(廢王禑元年) 道聞婦人哭曰 哭聲不衰 必有奸也 執訊之 果與奸夫謀殺夫者也 ○按 此條 亦必有事實 不應神通如此 記錄疏略不可知也

56)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研究』, 三知院, 1997, 125쪽 참조.

57) 『高麗史』<列傳> 卷 110, <李齊賢> 419쪽, “林寶林…宰京山府 道聞婦人哭 曰: 哭聲不衰 若有喜者 執訊之 果與奸夫謀殺夫者也”

이 설화는 고려 이보림 설화를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위의 고려 이보림 설화와 비교해보면 고려의 이보림 설화에는 “기뻐하는 기색이 보였다(若有喜者)”로 되어있고 丁若鏞의 이보림 설화는 “반드시 간계가 있을 것이다(必有奸也)”라고 한 것이 다를 뿐 다른 곳은 똑 같다. 다음에 嚴遵설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漢 嚴遵爲楊州刺史 行部聞女子哭聲 懼而不哀 問之 曰夫遭燒死 遵劾吏與屍令人守之曰 當有物往 吏曰 有蠅集屍首 乃披謁視之 有鐵錐貫頂(一本作鐵釘) 乃拷問 云以奸淫殺夫也⁵⁸⁾

漢代, 嚴遵이 양주차사로 있었는데 지역을 순시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우는 소리가 두려움이 있을 뿐 슬프지가 않았다.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불에 타 죽었다고 했다. 嚴遵은 어떤 것이 이 시체로 올 것이라고 하면서 부하를 시켜 시체를 지키게 하였다. 嚴遵의 말대로 파리가 시체의 머리 부분에 모여들었는데 嚴遵은 부하를 시켜 살펴보았더니 쇠송곳이 정수리에 박혀있었다는 것이다. 심문을 통해 간통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증거확보형으로 볼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 判官의 기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사실 이 설화는 『太平廣記』의 <嚴遵>이야기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嚴遵>의 原文이다.

嚴遵爲楊州刺史, 行部, 聞道傍女子哭聲不哀. 問之, 亡夫遭燒死, 遵敕吏與屍到, 令人守之, 曰: “當有物往” 吏曰, 有蠅聚集頭所, 遵令披謁, 謁錐貫頂. 拷問, 以淫殺夫.⁵⁹⁾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嚴遵>에서는 시기가 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나 <聞聲知殺>(嚴遵)에서는 漢나라로 설정이 되어있고, <嚴遵>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장소를 길가로 설정을 했으나 <聞聲知殺>에서는 구체적으로

58) 丁若鏞, 『欽欽新書』(朴錫武·丁海廉 校註), 現代實學社, 37쪽.

59) 李昉 등 編著, 『太平廣記』권제7, 중국필기문헌번역총서,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學古房, 2002, 7, 587쪽.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嚴遵>에서는 단지 울음소리가 슬프지 않다고 했지만 <聞聲知殺>에서는 울음소리가 두려움이 있을 뿐 슬프지 않은 울음소리라고 했고 <嚴遵>에서는 다음날 파리떼가 머리부분에 모여드는 것을 발견했지만 <聞聲知殺>에서는 交代 없이 嚴遵의 말이 끝나자 부하가 말하기를 파리떼가 머리에 모여든다고 했다. 그 외에 인물이나 사건의 경위나 아내가 남편을 죽인 목적 등은 똑 같다. 이로보아 嚴遵을 주인공으로 한 <聞聲知殺>은 『太平廣記』의 <嚴遵>설화를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 분명하다. 字數를 보면 <嚴遵>이 62字이고 <聞聲知殺>은 괄호안의 字數까지 포함하면 72字다. 괄호 안에 “一本作鐵釘”이라고 하였는데 宋나라 桂萬榮이 지은 『棠陰比事』의 <莊遵疑哭>에 “視之得鐵釘”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一本”은 『莊遵疑哭』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다. <莊遵疑哭>도 이름만 바꾸었을 뿐 <嚴遵>과 별 다를 바 없다.

『棠陰比事』는 1225년~1264년 사이에 모습을 드러낸 작품집이다. 이 작품집은 중국 南宋의 B.C.300~A.D.1100년 사이의 약 14세기 동안의 중국의 기이한 송사사건을 중심으로 南宋의 桂萬榮이 편집한 判例集이다. 『棠陰比事』는 『疑獄集』과 『折獄龜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먼저 간행된 『太平廣記』의 영향을 無視할 수 없다. <莊遵疑哭>의 一例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莊遵爲揚州刺史巡行部內聞哭聲懼而不哀駐車問之答曰夫遭火燒死遵疑焉因令吏守之有蠅集尸首吏乃披髻視之得鐵釘焉問知此婦與奸夫共殺其夫按伏其罪⁶⁰⁾

이 설화를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달리되어 있고 “駐車”라는 부분, “鐵釘”이라는 부분, “婦與奸夫共殺”라는 부분이 다르고 “當有物往”이 빠져있는 부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太平廣記』의 <嚴遵>과는 기본 구조가 다를 바 없다. <聞聲知殺>(嚴遵)에서 “懼而不哀”라고 한 것, “披髻視之”라고 한 것, “一本作鐵釘”이라고 한 것 등을 보면 『棠陰比事』의 영향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嚴遵을 主人公으로 한 <聞聲知殺>은 주로 『太平廣記』의 영향을 입었으며 『棠陰比事』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聞聲知殺>(嚴遵)은 『太平廣記』의 <嚴遵>에 보다 가까운 설화이면서도 『棠陰比事』의 <莊遵疑哭>과

60) 桂萬榮, 『棠陰比事』, 『文淵閣四庫全書』法家類, 臺灣商務印書館, 975쪽.

도 관련지어지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太平廣記』의 <韓滉>도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겨 그 여인을 잡아다가 사연을 묻고 부하가 남편의 시체를 지키던 중, 파리들이 머리에 몰려들어 머리에 못이 박혀 죽은 것을 밝혀내는 訟事型說話다. 사건의 경위는 <嚴遵>과 같다. 다음은 原文이다.

韓滉在潤州，夜與從事登萬歲樓，方酣，置杯不悅，語左右曰：“汝聽婦人哭乎？當近何所？”或對在某橋某街。詰朝，命吏捕哭者訊之。信宿，獄不具，吏懼罪，守於屍側。忽有大青蠅集其首。因發髻驗之，果婦私於隣，醉其夫而釘殺之。吏以爲神，因問，晉公云：“吾察其哭聲，疾而不憚，若彊而懼者。王充『論衡』云：‘鄭子產晨出，聞婦人之哭，拊僕之手而聽。有問，使吏執而問之，即手殺其夫也。’異日，其僕問曰：‘夫子何以知之？’子產曰：‘死於其所親愛，知病而憂，臨死而懼，已死而哀。今哭以死而懼，知其姦也。’”⁶¹⁾

『欽欽新書』에 보면 韓滉을 주인공으로 한 <聞聲知殺>도 위의 설화와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원문을 보면,

唐 韓滉在潤州，夜與從事登萬歲樓，方酣飲語左右曰 汝聽婦人哭乎 命吏捕哭者 訊之 對曰 夫死而哭 滉疑之 再三拷問 信宿獄不具 吏懼罪守於屍側 有大青蠅 集于其夫之首 因發髻驗之 果婦私于鄰人 醉其夫而釘殺之 人以爲神 ○按此與嚴遵事同也 既發疑心 卽當解屍檢驗 而必令吏守屍 待蠅之至 始乃發驗者 獄體至重 苟無詞證 不能開檢也(順菴政要云 高麗時 有妻殺夫獄 驗之無傷 刑官爲憂 其妻問之 知其狀告曰 當置屍室中 就蠅聚處驗之 刑官從其言果臍中納小針釘之 遂正其罪 刑官之妻 亦再適而來 疑其有奸黷之云)⁶²⁾

“人以爲神”까지 문자는 좀씩 다르지만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뒤에는 생략하고 설명을 달았는데 살펴보면 嚴遵의 이야기와 같다고 했다. 생략된 부분은 鄭子產을 주인공으로 한 <聞聲知殺>로 따로 취급했다. 원문을 보면 거의 그대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면, 팔호 안에 高麗 때, 처가 남편을 죽인 獄事가 있었다고 했는데 파리가 모여드는 것은 같으나 작은 못이 臍中에

61) 李昉 등 編著, 위의 책, 624쪽.

62) 丁若鏞, 위의 책, 37쪽. 朴英설화는 『寄齋雜記』권2에서도 보이는데 두 설화를 비교해 보면 문자만 좀씩 다를 뿐 거의 같다.

박혔다고 한 것은 좀 특이하다. 다른 <聞聲知殺>의 朴英(1471~1540)설화에서도 中指만한 刺가 臍중에 박혀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으로 나온다.

朴松堂英(武承旨) 嘗爲金海府使 在衙軒聞東鄰婦哭聲 急使刑吏往捕之 問曰 汝何哭 對曰 吾夫無病暴死 公再問之 又曰 吾夫婦同居無間 鄰里所共知 在庭下人齊應曰 然 萬無他疑 公使人擡其屍來 內外上下 轉輒視之 並無痕迹 婦人擗踊號哭曰 天乎知我 令公何爲此 下人無不潛嘆歎至有流淚者 公令仰臥其屍 使軍校有力者 自胸至腹 奮袖按之 果自臍中有刺 長如中指迸出 公卽縛其婦曰 吾固知爾有私 速言之 遂伏曰 某里某人 約與同去 乘其醉寢而行兇 發軍急捕之 其言符合 乃置于法 人問何以知之 公曰 初聞其哭聲不悲 故速來 而檢屍之際 外雖號擗 實有恐懼之色 故知之耳⁶³⁾

그 내용을 살펴보면, 朴英이 金海府使로 있을 때 이웃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잡아오게 한다. 그녀는 병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고 평소에 금슬이 좋았던 부부간의 관계를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뜰아래에서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그렇다고 하였다. 그녀의 대성통곡에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지만 朴英은 믿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죽은 남편의 시체를 반듯이 눕히고 가슴으로부터 배까지 누르면서 살피게 하였다. 과연 죽은 자의 배에서 中指만한 대꼬챙이가 나와서 간통했던 남자와 함께 남편을 죽인 사실을 밝혀내고 治罪하게 된다.

위의 설화를 <韓滉>과 비교해 보면 女人의 울음소리를 듣고 案件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같고 외간 남자와 간통하여 남편을 죽인 것, 흔적 없이 못을 박아 죽인 것 등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韓滉>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목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인물의 설정이 한국인으로 되었다는 점, 배경도 한국(김해)으로 되었다는 점, 犯人인 女人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살면서 금슬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力說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아내 심지어 보는 사람을 울릴 정도로 자기를 僞裝했다는 점(뛰어난 僞裝術), 대

63) 丁若鏞, 위의 책, 38쪽. 이 이야기는 『국역 대동야승』제52권 「寄齋雜記」(朴東亮)(117~118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寄齋雜記」가 이조 초기부터 明宗(明宗) 때까지의 이야기를 수록한 것을 감안하면 朴英의 이야기가 그 켜 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다.

못이 臍中에 박혔다는 점 등은 〈韓滉〉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判官인 朴英이 여인의 간사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案件을 밝혀내는데 이러한 것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독자들의 心中에 와 닿는다. 즉 『太平廣記』의 영향을 받았으되, 『太平廣記』所載 설화보다는 한걸음 발전했고 간단한 사건해명보다는 허구적인 설화로 변모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太平廣記』는 하나의 기념비로 우뚝 솟은 방대한 설화집이다. 『太平廣記』가 없었더라면 唐代 이전의 貴重한 說話들이 매몰되었을 것이며 많은 素材들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만큼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했었다.

『太平廣記』는 北宋時期에 發刊된지 얼마 되지 않아 구득하기조차 어렵게 되었고 悲運으로 성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통례인데 事實上, 『太平廣記』는 北宋時期에 流傳이 되었었고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商人들까지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高麗時代에 使臣으로 北宋에 여러 번 갔던 朴寅亮이 北宋의 文士들과 交遊하면서 『太平廣記』를 쉽게 求得하여 읽었을 수도 있지만 北宋의 文士 張中과 더불어 시를 주고받을 때 이미 『太平廣記』를 熟知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가 高麗에서 읽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使臣의 신분으로 北宋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방대한 『太平廣記』를 다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北宋에서 『太平廣記』가 流傳되었다는 점과 北宋과 高麗의 문화적 交流가 빈번했다는 점, 使節, 法僧, 留學生, 商人 등의 往來와 더불어 많은 서적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高麗 使臣들은 往來할 때 北宋의 文士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 특히 朴寅亮이 『太平廣記』를 熟知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080년 이전에 『太平廣記』가 高麗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문학의 수용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다. 『太平廣

記』의 경우, 한국적 수용은 적극적이었으며 자연스럽게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했고 한국 作家들의 새로운 생산을 자극하는 자극제로 되었다. 『太平廣記』의 傳來로 古代 한국 文士들이 敍事文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또 『太平廣記』에서 많은 素材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太平廣記』는 중국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古典文學에도 막대한 影響을 끼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太平廣記』는 한국 傳類뿐만 아니라 假傳體小說 및 訟事說話에도 많은 影響을 주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太平廣記』의 訟事說話를 능가하는 우수작이 나올 정도로 고대 한국 문학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太平廣記』의 문학적 가치는 영원할 것이며 『太平廣記』와 관련된 연구도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확신한다.

주제어 : 태평광기(太平廣記), 북송(北宋), 유전(流傳), 박인량(朴寅亮), 청순(靑脣), 송사설화(訟事說話).

참고문헌

- 李昉 등 編著, 『太平廣記』(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 李昉 등 編著, 중국 필기문학번역총서 『태평광기』권제7,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學古房, 2002, 7.
- 李昉 등 編著, 『譯註 古典小說 太平廣記 作品選』, 尹河炳 譯註, 國學資料院, 1996, 11.
- 『棠陰比事』(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 丁若鏞, 『欽欽新書』(朴錫武·丁海廉 校註), 現代實學社, 1999, 8.
- 『高麗史節要』, 亞細亞文化社, 1973, 6.
- 『高麗史』(上), 亞細亞文化社, 1972, 9.
- 北譯 『高麗史』第8冊(1964), 신원서, 1991.
- 一然, 『三國遺事』(李丙燾 譯), 新華社, 1983, 9.
-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
- 『국역 대동야승』제2권, 「용재총화」.
- 『국역 대동야승』제4권, 「패관잡기」.
- 『국역 대동야승』제22권, 「해동잡록」.
- 『국역 대동야승』제52권, 「기재잡기」.
- 李瀾, 『국역 성호사설』II, 萬物門,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
- 李瀾, 『국역 성호사설』VII, 經史門,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
- 李瀾, 『국역 성호사설』XI, 詩文門,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
- 李奎報, 『국역 동국이상국집』VI, 「백운소설」, 민족문화추진회, 1979, 10.
- 崔滋, 『補閑集』(朴性奎 譯), 啓明大學校出版部, 1984, 12.
- 柳夢寅, 『어우야담』(柴貴善·李月英 譯註), 한국문화사, 1996, 12.
- 『補遺高麗史列傳』, 高麗崇義會, 1997.
- 金鉉龍, 『한국문헌설화』제1책,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10.
-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太平廣記」의 影響을 中心으로』, 一志社. 1976.
- 金渭顯,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2004, 2.
-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韓國篇), 아세아문화사, 2001, 1.

- 金渭顯, 『高麗史中中韓關係史料彙編』, 食貨出版社, 1983, 7.
- 周發祥·李岫, 『中外文學交流史』, 湖南教育出版社, 1999, 1.
-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研究』, 三知院, 1997.
-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3.
- 朴晷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集文堂, 1986.
- 趙潤濟, 『國文學史概說』, 乙酉文化社, 1967, 3.
-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二友出版社, 1975, 3.
- 金圭泰, 『韓國詩歌研究』, 高麗원, 1986, 7.
- 박희병,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3.
- 정형우, 『조선시대의 서적정책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82.
- 王水照, 『蘇軾研究』, 河北教育出版社, 1999, 5.
- 徐張源, 「『太平廣記』東傳之始末及其影響」, 『中國語文學』第7輯, 1984, 5, 217-222쪽.
- 俞炳甲, 「中國學術要籍『太平廣記』評介」, 『中國學研究』第3輯, 韓國外大中國學研究所, 1986.
- 安炳國, 「『太平廣記』의 移入과 影響」, 『은지논총』제6집, 2000, 161-228쪽.
- 尹河炳, 「『太平廣記』로부터 諺解本『太平廣記』成立에 관하여」, 『古典小說 太平廣記 作品選』, 國學資料院, 1996, 11, 459-479쪽.
- 陳翔華, 「中國古代小說東傳韓國及其影響」,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9, 第2期, 41-79쪽.
- 金鉉龍, 「中國小說과 讀者」,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 韓國古小說研究會, 亞細亞文化社, 1994, 405-416쪽.
- 한미경, 「高麗와 북송의 서적교류 연구」, 『書誌學研究』, 第10輯, 書誌學會, 789-807쪽.
- 金海宗, 「高麗와 宋의 交流」, 『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지식산업사, 2000, 77-108쪽.
- 張國風, 「韓國所藏『太平廣記』詳節의 文獻價值」, 『文學遺産』, 2002, 4, 75-85쪽.
- 張國風, 「『太平廣記』在兩宋의 流傳」,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2003年 第二期.

金善祺, 「〈翰林別曲〉의 作者와 創作年代에 關한 考察」, 『語文研究』12, 語文研究會, 1983.

김장환, 「윤희인의 말」, 『태평광기』6, 李昉 등 編著, 중국 필기문학번역총서, 學古房, 2002, 3, 11-20쪽.

成昊慶, 「翰林別曲의 創作時期 論辨」, 『韓國學報』(56), 56-78쪽.

呂運弼, 「翰林別曲의 創作時期 再論」, 『睡蓮語文論集』第23輯, 수련어문학회, 1997, 2, 369-393쪽.

〈Abstract〉

The Hand Down of *Tai Ping Guang Ji* and its Effect on Korea Literature

Zhang, Yan-Gao

Tai Ping Guang Ji, a set of books in 500 volume, were published in August, A.D.977, which was then the 2nd year of TaiZong's regime in Chinese Song dynasty. The books were published under the editorial administration of Li Fang, and is one of representative classic literature works in China, which collected the ancient Chinese tales and stories till the begging of Song dynasty.

After publishing, it has been widely spread and read by literary men and ordinary merchants as well. During that time, as an envoy from Koryŏ dynasty, Park In-yang, who visited North Song several times, might had read this set of books. It might not be difficult for him to get a set of the books from his friends in China(Song). From the letters and poems he sent to Chang Zhong, a famous Chinese scholar of that time, we also can see that he had already read these books and know about the content well enough even in Koryŏ. During that period, culture and documents exchanges between Song and Koryŏ dynasties were quite popular, and many Koryŏ envoys could contact with Song's literary men directly when they visited Song. So it can be estimated that this set of books might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 before A.D.1080.

The Koryŏ mighty have accept the set of works quite actively, and it might not only interested Koryŏ readers quite well, but also became a kinds of stimulations for Korea writers. The introduction of *Tai Ping Guang Ji* to Koryŏ might have greatly affected the legendary literature of Koryŏ and it

also used to be a good resource for Koryŏ writers on their work.

Tai Ping Guang Ji not only affected ancient Korean literature on saga novels and personification novels, but also on lawsuit literature. On the basis of such a situation, we can see that Korean ancient literature were so developed that some of Korean lawsuit literatures were even superior to that of *Tai Ping Guang Ji*.

Key Words : *Tai Ping Guang Ji*, North Song dynasty, spreading, Park In-yang, blue lips, lawsuit literature.